

(2026년 7월 23일 목요일 4면)



송파구의회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은 지난 20일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동부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. 사진은 단체기념촬영 모습

최옥주 구의원 **‘송파형 내일채움공제’ 도입 간담회 개최**

송파구의회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은 지난 20일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 서울동부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,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‘송파 내일채움공제’ 도입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

이날 간담회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중진공 서울동부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 중진공 측은 송파구 관내 사업체의 93.1%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라는 점에 주목하여, 구와 기업이 기

업 부담금을 절반씩 분담(송파구 12만 원, 기업 12만 원, 근로자 10만 원)해 3년간 목돈을 적립하는 상생형 ‘송파 내일채움공제’ 사업 모델을 제안했다.

재정복지위원회 참석 의원들은 그동안 송파구 내 중소기업 대상 자체 지원책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감안할 때, 이번 중진공의 지원 확대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. 아울러 사업 추진을 위한 중복지원 여부, 세부 대상 기준,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등 행정·제도적 절차를 세밀하게 살폈다.

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은 “중소기업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밀착형 사업을 먼저 제안해 준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”며 “핵심 인력의 장기재직은 기업 생존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기틀”이라고 밝혔다.

이어 최 위원장은 “오늘 논의된 정책이 실제 관내 기업과 청년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”라며 “조례 제정과 세부 기준 마련 등 필요한 보완책을 검토해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”고 강조했다.